

# 이차전지 · 방산, 전북 미래 이끌 쌍두마차

### 전북자치도, 산업지형 혁신 주도할 핵심 소재로 집중 육성... 특화단지 지정 · 잇따른 기업유치로 급부상

이차전지와 방위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 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투자유치 10조 달성 등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계를 마련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산업지구로 만들고자 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 핵심 광물 및 리사이클링 분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전북 역사상 최대인 6조 규모 투자유치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고 추가적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와 대규모 박람회 참가 등 투자유치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적기 용지 공급을 위해 새만금 3·7공구 조기 매립과 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에도 함께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또 하나의 쌍두마차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도 높인다.

전북형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기관, 연구기관,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방위산업 협의체 구축,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생태계를 조성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LS엠트론의 완주

공장 증설투자 협약을 신호탄으로 관련 앵커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내 방산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역량 강화 지원도 나서는 투트랙 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차전지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산업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웅산역 비즈니스라운지의 누적 방문 이용객이 2023년까지 15만명을 돌파하며 도내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웅산역 비즈니스라운지 입구.

## ‘웅산역 비즈니스라운지’ 큰 호응

### 전북자치도, 기업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 누적 이용객 15만명 돌파... 계약 체결 성과 3조 3900억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웅산역 비즈니스라운지의 누적 방문 이용객이 2023년까지 15만명을 돌파하며 도내 기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웅산역 4층에 마련된 라운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회의실, 사무공간 및 휴게 공간 제공 등을 조성해 2018년에 문을 열어 3개 시도가 공동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15만명이 넘는 호남지역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라운지를 다녀갔으며, 라운지에서 이루어진 약 8,300여건의 비즈니스 협상으로 총 3조 3,900억원에 달하는 크고 작은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도관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이 매우 수월해졌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과 시설들이 갖춰진 덕분에 수도권 기업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비즈니스라운지는 프리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공간 등은 물론 업무용 컴퓨터와 복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희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 해소지원단장은 "호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신규시책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라운지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라운지 이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전북 소재 A기업 대표는 "웅산역에 라운지 공간이 있어 수

회면, 회의실 및 라운지 이용을 위한 예약은 홈페이지(www.g-j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96-00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 농진청, 연구시설 · 장비 민간에 개방 공동 활용키로

### 연구 장비, 국가연구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서 조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 분야 연구기반을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연구 장비와 시설을 신형 연구자들에게 연중 개방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개방하는 주요 연구시설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 표현체 연구 온실이다.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는 개인용

컴퓨터(PC) 3,800대 성능의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2023년 9월)으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연구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법 교육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원예작물 표현체 연구 온실은 첨단 온실과 복합환경조절을 통해 식물의 표현형을 다양한 영상 정보로 수집해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육

종 모형을 개발하도록 특화된 최첨단 연구 온실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 관련 분야 첨단 연구 장비인 성분분석이나 유전연구 장비, 현미경·영상 처리 장비 1,200여 점도 개방할 계획이다.

연구시설이나 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보유기관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문의와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청은 민간 연구자들의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보유기관 이외 장소에서도 연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신청 과정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공동 활용 규정을 개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국가 소유의 특수 연구 장비와 연구시설을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생명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경진원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통판매장 입주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군산시 대호로800) 지하 1층, 유통판매장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내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작년 1월 개관하였다.

입주시설인 유통판매장의 입주 공간은 약 643.10㎡(약 194평) 정도로 전용 442.75㎡/공용 200.35㎡이다.

임대료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의 경우 월 1,839,927원(연 22,079,124원, 부가세 별도) 수준으로 입주기업은 부대시설인 △회의실 △화상회의실 △다목적강연장 △장비실(시제품, 영상)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가보

맞춤형 교육, 박람회 및 마케팅 등의 사업도 지원한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통판매장은 온비드(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모집하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과 사회적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위축된 지금, 사업의 성장과 확장이 어려워진 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이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성장시켜 지역사회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퍼트리도록 돕겠다."며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모집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비드 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3월 심사 이후 결과를 발표하며, 진흥원 및 혁신타운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김옥기 기자

## 중기청,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추진하는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

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되어 왔던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OECD는 2000년까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

리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약 1천만명으로 지원 정책은 취업에만 집중되어 창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기업의 창업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기획재정부,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면 7월 1일부터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 8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1억400만원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금액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간이과세는 공급대가(매출만)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 과세(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하게 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